

## 현대오일뱅크, 창립 42주년 맞아 “변화 강조”

현대오일뱅크가 6월30일 창립 42주년을 맞이했다.



서울 남대문로 본사에서 개최된 창립기념식에서 서영태 사장은 “위기에 빠져들지 않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으려면 중단없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며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오일뱅크 42주년 창립기념식은 서울사무소 전임직원을 비롯한 협력기업 대표와 관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서영태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현대오일뱅크의 미래 성장 기반확보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한번 전사적인 역량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5월 스페인 CEPSA와 대

산공장 인근에 60만톤 상당의 Aromatics 제품과 30만톤 상당의 Cumene 생산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제 2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확보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7/03>